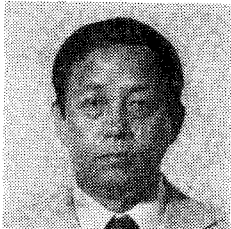


發明教室

發明으로 成功한 사람들의 이야기

PC조립식暗渠 發明人 黃賢浩 土木工事 분야 외길 20年만의 凱歌



〈黃賢浩 사장〉

토목공사로 한 분야에서 20여년 동안 근무해온 利多産業(株) 黃賢浩 사장(45)은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저렴한 조립식 암거를 개발했다.

비싼 토목기술 로열티를 외국에 지불하지 않고 우리 자체기술로 원가 획기적인 토목기술을 개발할 수는 없을까하고 궁리해 오던 黃사장은 그 동안 건설토목공사 현장에서 익힌 경험과 노하우를 기초로 하여 조립식암거를 개발해 냈다.

기존 시멘트공그리공법이 28일~40일 걸리는데 비해 이 조립식 암거는 4~5일이면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게 특징.

또 조립식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없는 것도 장점. 하중강도를 높이기 위해 지그재그식으로 맞물리게 조립하였다.

이 암거의 용도로는 도로, 배수로 암거는 물론 전신·전화암거, 지하공동구·방공호 및 교통호, 저장창고등 매우 다양하다.

그동안 이 암거로 공사를 한 곳은 호남고속도로 백양 인터체인지, 경부고속도로 구미, 청주, 경산 등이며 현재 목동아파트 공동구공사를 하고 있다.

암거를 개발해낸 黃사장은 「도시가 발달되면 전기, 전화, 도시가스 등 모든 구조물이 지하로 들어가게 된다」면서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하는데 이 조립식암거는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사실 선진국의 경우 이 조립식 암거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게 黃사장의 주장.

이 조립식암거는 공사를 위해 대형크레인과 트레일러가 필요하다.

현재 이천과 부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은 작은 것은 10~13톤, 큰 것은 33톤으로 이것을 공사현장까지 운반하려면 대형트레일러가 필요하다. 또 운반돼 온 암거는 크레인을 사용, 조립하고 있다.

우리 나라 도로가 전될 수 있는 하중이 41톤 정도로 33톤이상 가는 제품은 만들지 못하고 있다.

계절이나 날씨에 관계없이 공사를 할수 있는 이 암거를 개발한 黃사장은 학구열도 대단해 토목기술자격을 딴 후에도 대학원에 진학 현재 토목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평양이 고향인 黃사장은 현대건설 근무 당시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건설현장 근무 경험도 많다.

黃사장은 경부고속도로 공사도 참여했던 고참 토목인으로 을가을엔 국제발명품전시회에 참가하여 외국으로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암거를 생산하고 있는 태명실업의 토목기술상임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

第32回 發明教室

10月 11日, 成功事例 등 發表

- … 本會는 지난 10月 11日 特許廳 研修室에서 第32回 發明教室을 開催했다. ……○
- …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1時에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이번에도 200여명이 參○
- … 席하여 盛況을 이루었다. 이날 發明教室에는 利多産業(株) 黃賢浩사장과 三星○
- … 化成工業(株) 陳元浩 사장의 成功事例 發表에 이어 洪載日 辨理士의 「工業所有○
- … 權制度」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
- … 두 發明人의 成功事例를 간추려 紹介한다. ……………○

四顧五起의 發明人 陳元浩

외길 13年…世界的 發明人으로 부상

「우리 기술로 수축필름상표를 만들어 내자」 기술개발의 열기는 4년 8개월동안 연구실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어 놓았다. 陳元浩사장(44) 등 6명의 三星化成 연구팀은 4차례의 실패를 뚝심 하나로 밀어붙여 83年 1월 우리나라를 日本·西獨에 이은 세계 3번째 수축 필름 독자기술 보유국가로 올려 놓았다.

陳사장은 「우리 제품이 日本 것에 뒤질게 하나도 없다」고 자랑하며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日本과 한 판 겨뤄볼 생각이라고 말한다. 또 科學技術處는 같은 해 5월 이 제품을 국산 신기술제품으로 지정하고 2년간 외국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기술보호조치를 단행했다.

仁荷工大 化工科출신의 엔지니어인 陳사장은 「플라스틱분야의 첨단기업을 만들겠다」는 꿈만 가지고 재직하던 회사를 뛰쳐나와 三星化成을 세웠다.

처음엔 1회용 주사기 등 의료용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했다. 그러다 수축필름생산에 손을 댄 것이 지난

74년이였다. 하지만 이때의 수축필름은 포장용으로 쓰이는 것이 고작이었다. 수축필름은 말 그대로 열을 가하면 줄어드는 필름이다.

그러나 같은 수축필름이라도 포장용과 상표용 제조기술의 차이는 하늘과 땅 만큼이나 컸다.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점을 파악한 연구팀은 78년 6월 드디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그런데 81년말 日本에서 먼저 수축필름상표가 상품으로 생산되기 시작했다. 세계 최초였다. 연구가 진척되지 않아 지쳐있던 연구팀들은 더욱 허탈해졌다.

그러나 3년동안이나 쌓아올린 공든 탑을 그냥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82년 연구팀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했다.

완벽한 품질의 시제품을 만들어 낸 것은 83年 1월. 연구를 시작한 지 4년 8개월만이었다.

日本·西獨에 이어 세번째, 기업으로도 세계 다섯번째 배겨었다.

그 동안 들어간 연구비만도 4억



〈陳元浩 사장〉

8,000만원이나 됐다.

수축필름상표는 겹지의 안쪽에 인쇄됐기 때문에 상표가 지워질 염려가 없고 병이 깨져도 유리파편이 튀지 않도록 안전관여할을 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됐다.

三星化成의 다음번 개발 목표는 자동차 부품 등으로 쓰이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가벼우면서도 철제를 능가하는 고강도 플라스틱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엔지니어 출신의 陳사장은 「三星化成을 플라스틱분야의 세계첨단기업으로 키우는 게 꿈」이라며 의욕에 차있다. (8)